

##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6호

발행일 : 1999.03.20

### [기증자이야기]

작은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

이강모

처음에는 골수이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내가 이런 체험담을 쓰게 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증자들이 백혈병환자들과 환자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듯이 나에게도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려봅니다.

늦게까지 대학생살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필요한 작은 일손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 이것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수기증의 첫 과정인 자발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증자들 같이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조직이 일치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은 했지만 부모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 것은 뻔한 사실이고 오히려 반대할 것 같았기 때문에 작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형님들은 쉽게 이해해 주셨고, 큰 형님은 환자와 기증자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둘째 형님은 바쁘신 중에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막차를 타고 내려오셔서 격려를 해주기까지 했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답니다.

골수이식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처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신중함이 생기더군요. 어쩌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아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가 태아를 위해 태교를 하듯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이제는 나 혼자라는 것보다는 내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골수이식이 무엇인지 그 때부터 깊이 있게 알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책을 통해서, 그리고 골수은행 담당자를 통해서, 또 저의 모교 전주대학교 생명공학부 강경홍 교수님을 통해서 왜 골수이식이 중요한지와 골수이식에 대한 자세한 절차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통해 모든 검사와 준비를 했지만 막상 개강 후 진행되는 것 때문에 수업시간 결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 담당교수님들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하시면서 공결처리를 약속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입원과 함께 다시 간단한 검사를 했었고, 밤 12시부터 수술을 위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백혈병환자를 위해 계획된 절차대로 수술을 위한 간단한 준비와 함께 눈을 뜻 곳은 회복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실로 간 이른 아침 6시, 그리고 회복실에서 다시 병실로 돌아온 시간은 10시30분쯤이었습니다. 골반 6곳에서 백혈병으로 고통 당하던 환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 그리고 생명이 될 골수를...그리고 나에게 조금 빠른 느낌과 함께 침대에서의 휴식이 둘째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로 돌아온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던 골수은행협회 담당자에게 '광주에 처음 오셔서 병실에서만 있는 것보다 가까운 무등산이라도 다녀오세요'라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점심 때 퇴원을 위한 준비와 함께 빈혈에 대한 염려로 약을 받아들고 병실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짧은 2박3일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환자가 아닌 환자가 되어 죽을 수 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행복감은 이 세상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골수기증 이후 일어난 일 중 재미 있었던 일은 아마도 교수 아닌 학생이 학우들에게 강의를 했던 일입니다. 담당교수님께서 강의시간 이론적인 강의보다 저에게 골수이식이 무엇인지 직접 학우들에게 체험담을 말해 달라시며 두 번의 강의시간을 골수이식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골수이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들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일이 있을 후 많은 학우들이 저에게 골수이식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절망과 조절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가슴아픈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과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선생의 물음에 길가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오지만 이들은 그냥 지나쳐 버린 사람으로 그러나 아무도 예상 못한 이스라엘 사람과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주며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율법선생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이 있지만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요?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

이연

7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여행을 떠난다는 기쁨에 들떠 있던 나에게 골수협회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나자는 것이었다. 난 직감적으로 알았다. 또 나의 골수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순간 나의 머리속엔 2년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듯 그때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또한, 그때 느꼈던 감정들까지 생생히 떠올랐다. 그런데 뿌듯하고 행복했던 마음보다는 힘들고 불편했던 기억이 더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행을 가야한다는 핑계로 만나자는 걸 뒤로 미루고 여행을 떠났다. 텐트치고 야영도 하고, 설익은 밥도 해먹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푸른 바다에 빠져 수영도 하고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다. 여행도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10시간 정도의 힘든 산행을 마치고 아마 산을 거의 내려왔을 무렵이었다. 행복해하며 친구들과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느낌이... 그건 하나의 깨달음과 같았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올라서 자연을 마음껏 호흡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큰 행복으로 다가 왔다. 만약 이런걸 느끼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불현듯 그때 나의 골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친구가 떠 올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친구는 병원침대에 누워 아파하고 있겠지? 또, 그 친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타하며 마음아파 하고 있을까? “그래!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결심을 했다. 골수를 나누어 주기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골수협회 이영민대리님께 ‘나의 골수를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다. 막상 결심을 하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물하고 마음도 안정시킬 겸 거북이 접기를 시작했다. 어느새 불안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친구가 나의 골수를 받아 건강해 지기만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곧 수술날짜가 잡히고, 남동기선생님과 박윤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더불어 이영민대리님 외 골수협회 직원분들 모두가 너무 편안하게 대해 주셨기에 두렵다거나 불안한 마음없이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다. 처음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 두 번째 골수기증에서도 느낀 것이 많았는데 그건 이 경험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또한 훌륭한 인생의 ·마음의 재산이 되었다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지, 또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등등...정말이지 내가 앞으로 살아 가야할 날들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나의 골수를 받은 친구와 또, 다른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내가 외우고 있는 글귀를 들려주고 싶어 적어 보았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위의 글처럼 희망은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희망이란 존재가 생겨난다. 그러니 우리 모두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이란 길을 많이 만듭시다!”

한줄기 촛불이 되어

글. 유문중

컴컴한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한줄기 빛을 이기지 못하고

추운 겨울의 대지가 아무리 얼어도  
따뜻한 봄기운은 이길 수 없네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의 무리가 제 아무리 강해도  
생명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고

실망 좌절 낙담의 파도가 아무리 덮쳐도  
사랑의 도는 끊을 수 없네

자신의 몸을 태우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촛불처럼 숭고한 희생이여  
세상의 빛이 되어 영원하라.

골수이식!백혈병!

이 단어를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중학교 때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에 큰 감명을 받고 건축가가 되어 세상에서 아주 멋진 건물을 하나 남기고 죽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그 꿈은 여러가지 형편상 내게서 멀어만 갔고 항상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 자선사업이나 봉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존경스러웠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지”하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것은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손쉽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헌혈이었고 나의 작은 뜻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었다.

어느날 혈장 헌혈을 하다가 그곳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안내전단을 보고 간호사 아가씨에게 물으니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골수이식을 못 받아서 그대로 죽어 간다는 이야기와 골수는 헌혈처럼 기증을 해도 몸에 다시 충족되어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였다.

그 순간 얼마전 언론에 떠들썩했던 성덕바우만군의 백혈병과 골수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고 어린아이가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머리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는 골수기증 의사를 밝히고 간호사의 친절함 안내에 따라서 기증 등록을 했다.

그로부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나에게 어느날 딸이 “아빠 골수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하면서 쪽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다음날 골수은행 이영민씨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던 중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3일간 입원을 해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뼈속을 바늘로 찔러서 수술후에는 약간의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입원, 수술, 통증...” 약간의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에 나는 잠시 주춤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한참이 흘렀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서로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핵가족이 가속화되어 부모형제, 일가 친척도 조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도울 수 있어야만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하고 설명하였다.

“나의 조직과 같은 사람이 또 없나요?” “유문종씨와 같은 사람은 7~8천명에 한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나는 약간 충격이었다. 서로에게 맞을 확률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나의 골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나이가 14살 소년이라는 것 밖에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것이 공여자나 수혜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아니면 그 어린 것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럼 계속해서 추진해 보세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홍보용 책자와 실제 공여자와 수혜자들이 쓴 수기 발간집을 몇권 주었다.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읽어 보았다. 다 읽어본 아내는 “당신 이것 무엇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쓸데 없는데 신경을 쓰지 말아요”하면서 난색을 표 했다. “아니야 이것은 헌혈과 비슷하게 해서 백혈병 환자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모를지 알아요. 전신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3일동안 입원도 해야 한다는데 절대로 안돼요.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나는 더 이상 설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보았자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후부터 기증 절차는 아내는 모르게 나와 협회 관계자만 아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입원 날짜와 수술날짜도 정해졌다. 그러던중 입원 몇일전에 큰어머니께서 갑자

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지방에 불일이 있어서 갔다 온다고 하니깐 아내는 장례 지내고 오자마자 무슨일로 지방에 가느냐고 이상하다는 듯 꼬치꼬치 캐 물었다. 다행히 그동안 골수은행협회와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서 아내는 한달전 그 일을 잊어 버리고 있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서로 약속 한거야, 그래서 꼭 가야해.” “누구 누구하고 가는데요?” “음, 명동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뭘 그렇게 물어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속이고 바람피우고 다니는 것 보았어.” 하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일관계로 지방에 가끔 내려간 일이 많아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집을 나와서 불일을 보고 약속장소인 병원으로 가서 이영민씨를 만나서 입원병실로 들어갔다. 이영민씨와 나정화씨는 나를 1인 독방에 수감(?)을 했다. “아니, 나는 10인실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요. 왜 독방?” 그들은 웃으며 공여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다. “입원비가 꽤 비쌀텐데 어차피 봉사하는 것,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돈 있으면 조금 더 아껴서 백혈병 환자를 도와주지...” 속으로 생각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직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를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해서 나는 “그냥 걸어서 갈게요” “수술 환자가 걸어가면 안되요. 어서 누우세요.” “아저씨, 나 환자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면 왜 수술을 받아요?”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데 웃음이 나왔다. 내가 완전히 죽을 환자가 되어서 수술실로 끌려가는(?)것 같았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척추 마취를 하니깐 하반신만 마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간호사 아가씨가 등을 구부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문(?)을 하는 동안 등뒤에서 마취를 시작했다. 조금 후에 발을 움직여 보라는 말에 다리를 위로 힘차게 번쩍 들었지만 다리는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꼬집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을 모르고 곧 골수 채취가 시작되었다. 무엇인가 꽃고 찌르고 짜내는 것 같던 작업이 끝나면서 담당 의사 선생은 “잘 참았어요. 골수채취는 아주 성공적이고 귀중한 생명을 살렸으니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

병실에 오니 이영민씨와 나정화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이 안들어서 한번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직은 허리쪽에서 힘을 받기가 힘들었다. 오후쯤에는 일어나서 뒤뚱거리며 조금씩 걸을 수가 있었고 다음날은 80%정도가 나아져서 퇴원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지만은 아내에게 속이고 와서 그대로 퇴원을 못하고 하루를 더 입원해서 다음날 멀쩡한 사람처럼 걸어서 퇴원했다. 병원에 있으니 난생 처음 입원한 병실은 갑갑하고 답답했다.

자주 복도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는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입원했어요?”하고 물어 왔다. 나중에 골수를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왜 모르는 사람에게 주느냐는 등 별 질문을 다 했다. 그곳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다. 어떤 아저씨는 자신의 아들도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를 이식 받기위해 왔다면서 세상이 험하

고 나쁜지만 알았는데 여기 오니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오히려 나에서 고맙다면서 계속 손이라도 잡아 주고 싶다며 자주 내방에 왔다.

간호사 아가씨들의 칭찬도 아낌이 없었고 여러 사람의 칭찬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하였다. “아니 어떻게 집사람도 몰라요?” 하면서 물어 볼 때는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병실에는 소문도 빨랐다.

다음날 나정화씨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퇴원한 나는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와 안기며 뒤를 꼭 안아주는 순간 “아! 아빠 아프니깐 저리 좀 가”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어 보았다.

“응, 아빠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워 있으니깐 아내가 들어왔다. 지금부터는 내색을 하지 말아야지 굳게 마음을 먹었다.

“당신, 잘 갔다 왔어요? 왜 누워계세요?” “응 조금 피곤해서” “아니야 엄마, 아빠 아프데” 아이들이 옆에서 예상밖의 답변을 하며 끼어 들었다.

“아니야 오랫동안 차를 타고 왔더니 허리가 조금 아파서 쉬는 거야.”

잠시후 아내는 부엌에서 “가연이 아빠, 석유가 떨어졌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2통만 사와요”

“내일 사다가 넣으면 안돼?” “와서 봐요. 하나도 없어요. 많이 말고 2통만 사와요.”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아직까지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었고 서울에서 부천까지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니깐 허리가 조금씩 쑤시며 아팠다.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본 아내는 “괜찮아요?” “응, 갔다올게”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기름을 사서 통에 넣고 자리에 다시 누웠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옆에 앉으며 나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왔지요?”

나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었다. “아니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 오다가 피를 뽑고 오는 길이야. 검사 결과는 15일 후에나 나오고 100가지 검사중 한가지라도 틀리면 제공할 수도 없어. 그러니 안심해.”하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건강 하나고 당신의 건강이 어디 혼자만의 건강인지 알아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고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내는 이내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너무 걱정 하지마. 아직은 하지 않은 것이니깐, 나중에 검사가 나오고 결과를 보아야 해.”

“만약, 결과가 해야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는 내가 당신과 반드시 협의를 할게. 약속해.”

“이제, 못 믿어요. 거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 해봐야 겠어요. 전화번호 어디 있어요?” “지금은 모두 다 퇴근했으니 내일 확인을 해봐. 이따가 가르쳐 줄게” 나는 우는 아내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설득은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다. “가연이 아빠, 가연이 아빠 일어나 봐요.” 아내는 무엇을 보았는지 놀라며 나를 깨웠다. “아니 이게 무엇이에요. 어디 한번 봐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자리에서 나의 몸에 소독약이 묻어 있는 것을 옷 사이로 본것이다. 옷을 들치며 보려는 아내와 안보여 주려는 나의 사이에 조금 심한 몸 싸움이 벌

어졌다. 결국 나는 누워서 배부분만 보여 줬고 옆구리에 묻어 있는 소독약은 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뽑고 소독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럼 뒤를 한번 봐요.” “아니 이 사람아, 수술 하면 앞으로 하지 누가 옆에 놓고 해.” “사람이 한번 말하면 좀 믿어야지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벌컥 화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아내는 나의 짜증에 더 이상 보채지 아니하고 “정말 당신, 맘대로 하기만 해봐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나가 버렸다. 한숨이 나왔다. 또 한번 고비가 넘어 간 것이다.

혹시 골수은행에 전화를 걸지를 몰라서 아내가 나간후에 이영민씨와 말을 맞추고 나중에 아내를 설득하기로 하였다.

저녁을 먹고 “여보, 우리 나가서 데이트 한번 합시다.” “좋아요. 나도 할말이 있으니 나가요.” 아내와 나는 밖으로 나와서 조금 걸다가 공원으로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마음을 먹고 아내를 다시 설득하였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할까?” “글쎄, 각자가 사는 방법과 생각이 틀리겠지요.” “당신은 내가 골수를 기증 한다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면 안돼. 거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야.” “내가 무조건 안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에게 돈 사고가 나고서 지금은 여유도, 특별한 수입도 없는데 그러다 몸이라도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고 사람을 죽일수가 없잖아. 그럼 그 어린 생명을 죽게 내버려두란 말이야.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잖아.”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어요. 지금 나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안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제공자의 모든 조직이 맞아야 하는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쨌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몸에 손상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잖아요.”

“수술이라고 해서 몸의 장기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라는 것을 추출해서 환자의 몸에 넣는 거야.” “어쨌든 수술 과정에 칼을 안대면 레이저를 쓰던지 할거 아니어요?” “그런게 아니야, 다량의 피가 나와서 미리 내 피를 뽑아 놓았다가 골수를 뽑은 후에 다시 내피를 몸 속에 넣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어.”

이렇게 설득 시간이 1시간이 흘렀다. 아내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몸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 주었다.

“너무 걱정마.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잖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나 많이 해줘. 아직은 살날과 꿈이 더 많은 아이잖아.”

나의 가족을 위한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웠다. 세상에 악의 무리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편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골수은행협회 관계자와 병원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나의 골수를 이식 받은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 [수혜자이야기]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임명옥(김진실 엄마)

1997년도에 진실이는 유치원에 다녔다. 그런데 유치원 생활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지려고 해서 11월달에 유치원을 쉬게하고 집에 대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평상시하고 다른 것 같아서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인보다 낮으니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안산 고대에서 서울 안암 고대로 와서 골수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보름만에 퇴원하고 외래로 다니다가 다시 수치가 떨어져서 1998년 2월 4일 입원해 검사한 결과 M.D.S(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병명이 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생소한 병명이었다. 평상시에는 소아암환자가 이렇게 많을줄 상상도 못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듯 했고, 무슨 꿈을 꾸는것만 같았고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진실이 오빠와 골수를 맞추어 보았는데 맞지 않아서 골수은행에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진실이는 약물치료로 좋아져서 퇴원을 하였는데 4개월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되었다.

다행히 진실이와 맞는 골수가 골수은행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골수이식을 할려고 항암치료에 들어갔다. 항암치료는 진실이에게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다. 한달이 넘게 고열이 나고 입안이 험고, 설사를 하루에 열 일곱번씩이나 했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진실이에게 부모로써 해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으니깐...

진실이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주셨다.

한줄기 희망이었던 골수기증자가 골수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골수기증자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골수기증자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최선의 방법은 골수이식밖에 없는데, 약물치료는 시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과 맞는 골수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막상 맞는 골수가 있는데도 골수기증자가 주지 않아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수고가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진실이의 질병을 통해서, 진실이 아빠는 하나님 앞에 돌아 왔으며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내 가족, 내 울타리만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 왔지만은 이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진실이 취학통지서가 날아왔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갈 준비를 하지만 진실이는 천국 갈 준비를 한다.

진실아, 하나님 계신 천국은 골수검사, 피검사 안해도 되고 주사바늘도 안꽂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주아주 좋은 곳이란단다.

진실이는 혼자 천국가기 싫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지고 한다. 진실아, 예쁜 천사가 오면은 언제든지 손잡고 따라 가거라, 진실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아빠, 엄마, 오빠도 뒤따라 갈테니까.

## 세상의 따스함이 내게로

이 포

오늘 내가 의미 없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시절, 독서실 책상에 붙여 놓았던 문구이다. 그때에는 별 의미 없이 붙여 놓은 문구가 이제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웃지 못할 삶의 아이러니일까?

1997년 겨울,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던 나는 어머님으로부터 얼굴이 창백해보인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원래 하얀 편이어서 그럴거예요.' 하며 가볍게 대답했다. 그러나 봄이 오고 개강과 함께 자취생활로 돌아간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레포트를 제출하러 가는 2층의 전산실은 물론이고, 5층에 자리한 중앙도서관은 정말로 까마득하게 보였다. 버스정류장에서 자취방까지의 100m도 채 안 되는 길도 몇번이고 쉬어가야 했다. 지각이 염려되어 강의실까지 뛰어가게 되는 날은 하루종일 구토와 어지러움에 시달려야 했다. 얼굴색이 너무나 창백해 병원에 가보란 말이 이미 인사가 된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날, 현기증으로 인해 길바닥에 쓰러졌고, 그러한 일이 두 번이나 있자, 더 이상 병원을 찾는 발길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그해 4월 11일, 결국 나는 지역의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담당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커다란 충격에 몇 마디외에는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없었다.

4월 15일, 나는 진료소견서 한 장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날 골수검사를 시

행했는데, 결과는 혈소판 10,000 적혈구 3.6 백혈구 1,000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었다.

그 날 이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치료의 개요를 설명 받았다. 골수이식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누나와 HLA 검사를 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는 골수혈회에 의뢰해보자고 제안하셨다. 그러는 동안, 면역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무균실로 옮겨졌다. 며칠 후에 골수혈회로부터 소식이 왔다. 적합한 공여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절망의 연속이었다.

두서너 평 남짓한 공간에서 치렁치렁 주사줄을 달고 있던 그때, 식후 나오는 30알이 넘는 약들을 보며 이 약의 개수 만큼만 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적도 많았다. 의사가 아닌 환자로 병원과 깊은 인연을 맺게된 웃지못할 삶의 희곡에 몸부림치기도 하였다. 의사가 된다는 것, 아버지 또한 의대생이셨고 나도 의대생이지만 우리 부자가 똑같이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하고 원망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근심어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매일 전화와 편지로 용기를 주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갔다. 하루하루가 소중한게 느껴지며 문득 고등학교 시절 책상에 붙여 놓았던 문구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옴을 느꼈다.

5월 16일, 치료경과가 좋다며 예상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나는 퇴원했다. 그 후에도 약 7개월 간 면역억제제를 경구 투여했다. 그 결과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면역력이 낮으므로 합병증 등을 조심해야 하며, 재발의 위험 또한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골수이식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무균실의 수간호사님께서서는 아직은 모든 과정이 진행중이며 궁극적인 치료는 골수이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훗날 내가 완쾌되어 오래도록 산다면, 이번의 경험이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왜 하필 내게 그런 일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원망으로 가득찼던 시간들보다 그간 몰랐던 세상의 따스함이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혈소판 헌혈에 응해주신 분들, 헌혈증서를 모아 오신분들, 골수 기증에 나선 친구들, 담당 의료진들,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골수기증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근심하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완치에 이르는 것이며, 그들로부터 받은 삶을 하루라도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만분의 일의 행운

수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황○○ 엄마입니다.

고통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와 병 간호에 너무나 고생 많으신 부모님들께 미약하나마 이 글을 읽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라고 몇자 적어 봅니다.

1998년 5월 25일,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양호실에 누워 있다는 연락을 받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이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 본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3.4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뒤로한채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릴 땀 병치레를 조금 했지만 그 후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는데 진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큰 병은 아닐꺼야, 별일 없을거야, 마음을 조이며 진찰을 받았지만 선생님은 애를 이 지경까지 방치해 뒀다고 나무라시며 곧바로 응급실로 내려가라며 조치를 해수셨다.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과 가슴이 철렁 무너져내리는 심정을 삭이며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해야 된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에 기진맥진되어 있는 ○○이는 곧바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왜 입원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참지 못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TV에서만 보았던 백혈병 환자들의 골수검사가 ○○이에게도 의무적으로 주어졌다. “괜찮을거야, 힘내.”라는 말만 건네주고 차마 지켜볼 수 없어 밖에서 가슴만 태우고, 여러 날 검사결과 ○○이에게 주어진 병명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성덕바우만 때 메스컴을 통해 들어 본게 전부였다고 병명 자체도 너무나 생소했으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수 이식 수술을 안 해주고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이의 생명은 길어야 1년이라며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이 똑 같은 마음이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았고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원망도 부정도 해 보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앞으로 ○○이가 겪어야 할 고통, 아픔, 얼마동안 병마와 싸워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의 조직적합 항원검사도 해 보았지만 맞지 않았고 상심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담당선생님이신 박세명 선생님께서 “한국골수은행협회”란 곳이 있는데 신청을 해 보자며 희망을 주시며 자상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병명을 진단 받고 ○○이는 1차 퇴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외래는 시작되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수혈을 받아야 했으며, 20여 일후 박세명 선생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와 맞는 골수 공여자분이 두분이나 나타났다고, 일반인 중에서 맞을 확률이 20,00분의 1정도라는데 그 행운이 우리에게 오다니 그때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기도뿐, 그러나 그 기쁨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많았는지 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세포가 백혈병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병명은 다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바뀌었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입원하라고...

6월 30일 저녁 2차 입원, 또다시 골수검사, 척수검사, 항암치료까지 아픔은 다시 시작되었

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일까 그 모든걸 검사할 때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무던히도 잘 참고 견디며 어느 땐 심한 고열에 몸부림칠때면 어찌할 바 몰라하는 내게 이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던 ○○.

엄마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하얀 시트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울어야 했던 여러 날들, 항암 치료에 하나둘 빠지는 머리카락을 차마 볼 수 없어 깎지 않겠다는 ○○이를 달래고 달래서 밀어버리던 날,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여야 했고 모든 걸 참아주는 ○○이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는 관해가 잘되어 40여일만에 2차 퇴원을 했습니다

한국골수은행협회와 선생님들 덕분에 골수 공여자분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셨고 곧 골수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8월 ○○일 3차 입원해 8월 ○○일 또다시 길고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사선부터 시작해 골수이식까지 잘 참고 견디던 ○○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했으면 엄마 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 예이, 대신 아파 줄 수 없는 나 자신이 미웠고 유리창 하나 사이를 두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게 전부며 인터폰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용기 잃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 참아주었는데 약한 마음먹지 말고 참고 이겨내자고 잘 될 거라며 그래야만 골수를 주신분과 너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웃으면서 안심시켜주는게 다였습니다.

타인 골수이식수술이 이곳 ○○○병원에서는 ○○이가 처음이기에 김길영 박사님을 비롯해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9월 ○○일, 무사히 골수이식이 끝났고 수술 후 이식편대 숙주질환이 염려된다 했지만 별탈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식 수술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골수검사,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골수이식후에 오는 모든 고통을 무던하게도 잘 참아준 ○○이가 대견스러웠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성공적으로 경과가 좋아 10월 24일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고생하셨던 고통을 함께 해주신 김길영 박사님, 박세명 선생님, 윤호영 선생님.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1-7병동 수간호사 선생님과 손과 발이 되어 보살펴 주신 간호사 언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얼굴도 성함도 알지 못하는 골수기증자분께 다시 한번 글로써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드러봅니다.

내 형제 같이 안타까워하며 아낌없이 혈소판을 뽑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용기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도 착하고 명랑하며 건강하게 소중한 삶을 헛되지 않게 진실되며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키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결과가 좋아서 박사님도 흐뭇해 하시고 1년 휴학계를 냈지만 3월초에 학교에 다시 복학하려 합니다.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백혈병 환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말고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그동안 같이 고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타인 골수이식 받은 환자를 지켜보며...

글 정 영식(환자의 이종사촌)

2월 ○○일 골수이식 날이다. 1시경 병실로 전화를 했다. 병실에는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다. “여보세요? 저 영식입니다. 골수 도착했습니까?” “아직 안 왔다는데...” “1시가 다 되는데 아직입니까?” 문득 담당 의사의 말이 떠 오른다. 골수이식 날 불가피한 사유로 골수를 기증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있으니, 그런 경우 자기 골수를 다시 넣고 다른 골수기증자를 찾아 봐야 한다고... 혹시나 하고 불안감이 스친다. 다른 환자 가족들의 애긴 즉, 오전에 골수가 도착하여 이식을 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 2시경 다시 전화를 했다. “골수가 도착했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도착해서 이식중이야.”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고 한다. 인정이 메마르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약한 일은 비밀비재하며, 모두가 악하다며, 세상 말세야! 암, 세상 말세지 하며 살고 있단다. 과연 그럴까? 행복이란? 부자란? 그래 맞아, 나누어주는 자다. 나누어주는 자는 부자며 행복한 자다. 세상이 악하다 하나 그래도 신선하고 착하고 나누어주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수기증자가 어느분인지? 정말 고마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께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은 ○○일, 골수이식을 받은지 15일, 환자는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한창 고비인가 보다. 아직도 음식을 잘 못 먹으며 때론 현기증, 구토가 난다고 한다. 어제 온 몸이 마치 몸살난 것 같이 사지 뼈마디가 쭈시고 아팠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해결 수가 없다. 그저 지켜 볼 뿐이다. 위로의 말을 한다면 “지금이야! 힘을 내야지. 잘 견디고 참아야 돼.” 안 스런 마음 뿐이다.

어느 분의 말이 떠오른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서 주님의 은총이다.” 종원아,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단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현혈해 주실 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름답다. 종원은 잘 견디고 있는 하루하루 병마와 싸워 이기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환경과 여건이 어떨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참으로 어려운 병을 얻어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 여러분! 그리고 이를 안쓰럽게 지켜보시는 가족여러분! 힘내세요. 또 힘을 주시라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 [외부원고]

###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떤 강도가 남의 집에 침입해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두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는 사실 신경통 환자라 두 손을 못 들겠소”하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당신이 신경통 환자입니까? 사실 나도 신경통 환자입니다.”하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곧 주인과 강도는 신경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숨과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긴장은 어느새 해소되고 두 사람은 정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강도와 신경통 환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글프게도 요즘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 생깁니다.

사실 공공이 살펴보면 공통분모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폐쇄되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이여, 오늘부터 공통분모 찾기에 나섭시다. 이산가족 찾듯이 말입니다.

어떤 시인의 짧은 시를 소개합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 보고싶은 사람들

박은영(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 코디네이터)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 출근하던 날, 두꺼운 커튼으로 병동은 나뉘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가운과 마스크를 한 보호자를 보며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던게 새삼 생각난다. 그들과 생활한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처음 만났던 백혈병, 골수이식 환자들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과의 삶에 대해 글을 써 보리라 생각도 했었던, 그리고 그 이후의 그들의 생활에 지금도 궁금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기억의 일부가 되어있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한다.

무균실이 생기기전, 1인실을 소독하고 골수이식을 하던 시절에 30대 중반의 전라도 아저씨는 골수이식을 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근무하고 있는 나를 퍽 위로하며 지냈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보호자는 부석부석한 얼굴로 부지런히 환자를

보살폈고, 보험도 되지 않아 고가인 시술을 받는다는(그 당시 골수이식은 비보험 시술이었음) 환자는 굉장한 유머의 소유자였다. 지금은 대통령이신 그분이 야당시절 전라도의 영웅이었을 때, 중학생 신분으로 그분의 강의를 들은 후 열렬한 팬이 되어 그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며 정치 이야기를 즐기던 분, 골수이식이 보험이 되기 전인 그때, 한달 분의 사이클로스포린(산다문) 약값만 해도 백만원을 호가하던 그 시절, 캡슐도 없이 물약으로 그 역겨운 냄새를 참아가며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체중을 줄이면 약값이 줄겠지?’ 하며 체중감량을 목표 삼아 금식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던 그 아저씨가 보고싶다.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던 날 난 골수이식의 과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분이 살아날 거라는 간절한 희망을 가졌었고 ‘나 꿈을 꾸었는데, 천사와 괴물들이 싸우더라고... 아주 악몽이었어. 그런데 환한 빛이 오더니 그 괴물들이 다 사라지더라니까?’ 환자는 그 꿈을 병이 나을 꿈으로 해석했고 난 그 자리에서 맞장구 치지는 못했지만 환자가 내게 이야기 하던대로 그 바람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달랐던 상황에 난 무력감을 느꼈고 병실벽에 기대 가슴이 미어져라 흐느끼며 ‘지지도도 가난해서 고생하더니... 다시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라, 제발...’ 하던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아주머니와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면서도 감히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음은 나의 게으름이겠지...

세월이 흘러 무균실도 만들어지고 나도 경력이 조금 되었을 때, 한 총각이 형님을 보호자로 골수이식을 했었다. 참 마음 착한 형님이었고, 그 형님을 무척이나 귀찮게 했던 동생이었다. 백혈병으로 약물치료를 하던중 맹장염으로 수술까지 받았던 그 청년은 어리광(?)이 많았고 새벽잠이 많아 밥번근무자와 이른 아침에 꼭 실랑이를 하곤 했었다. 어리광이 많다고 구박아닌 구박도 받고 부설판의 그 많은 알약을 먹을 때마다 열리고 험박하여 겨우 먹던 그 청년은 골수이식 후 3년쯤 후에 결혼하고 그후 2년 후엔가 아이를 낳았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들었다. 아내는 어떤 분일까? 그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도 이식후 3~4년까지는 소식을 전하고 찾아오곤 했었는데 이젠 40대가 가까울 그분의 소식도 궁금하다.

또 한사람, 나와 나이가 같아 유난히 마음이 같던 한 청년이 있었다.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살면서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그 청년과 정말 헌신적으로 오빠를 돌보던 수녀를 닮은 누이동생, 그 둘은 나뿐만이 아니라 근무하던 모든 병동식구들의 안스러움을 자아냈다. 치료 후 재발이 반복되면서 그 청년은 어느날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달라. 내가 이렇게 끝없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조용한 곳에 여행가고 싶다. 정말 이젠 혼자이고 싶다...’ 얼마후 그 청년은 자기의 뜻대로 여행을 갔다 왔다. 시골 교회의 한 전도사로부터 삶에 대해 다시 배웠다며 치료를 다시 했으나 결국 그 청년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갔고 오빠의 그 길을 지켜보며 오염을 토하던 누이동생은 지금 어디서 무얼할까? 어느 조용한 수녀원에서 병들어 고통받는 많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소아마비의 한 멋진 여인으로부터 직접 만든 물들이 안개꽃 선물받던 수려한 외모의 청년, 무균실에서 무섭다며 울어 몇번이나 기운을 입고 뛰어 들어가게 하던 부산 여대생,



골수이식후 나오면 신부가 될거라던 청년, 그 청년의 가정은 정말 너무나 가족애가 좋았고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 청년의 수개월 후쯤 그 부모님의 전화에 나는 무척 놀랐고 당신네 가족들이 다른 환자를 위해 헌혈 하겠노라며 필요하면 꼭 연락 하라시던 아버님의 음성이 지금도 기억난다. 무균실에서 너무 힘들어 간호사님들에게 보일 것 안보일 것 다보여 창피해서 인사올 수 없었던 대학다니던 남학생, 그 누나가 내가 결혼 하던 때에 축주를 해 주겠다고 축하해 주던 일, 생각하면 한 명 한 명 모두가 생각난다. 지금이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있던지 아니면 더 좋은 곳에 있던지 모두가 그러하다. 누군가 자기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으면...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병원에서 나를 만났던 모든 환자와 그 가족들이...